

생산·출하량 90년대 들어 최저수준

수입액 9% 증가에 수출액은 2% 감소

생산·출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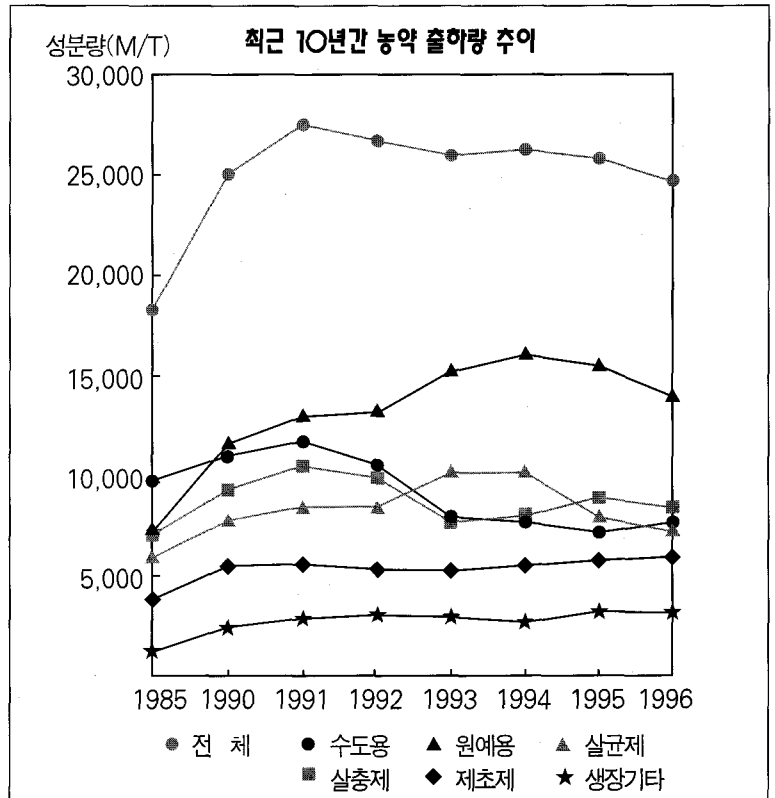
지난해 농약 생산·출하량은 모두 90년대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90년부터 96년까지 90년대의 농약소비 추이를 보면 91년을 고비로 점진적인 하락세에 있다. 살균제·살충제는 91년을 기준으로 보면 다소의 회복은 있으나 감소추세이며, 농촌의 일손부족 현실을 반영한 듯 제초제만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그동안 줄곧 감소세를 지속해 온 수도용 농약은 지난해 처음 하락세를 벗어났고 성장세이던 원예용 농약은 95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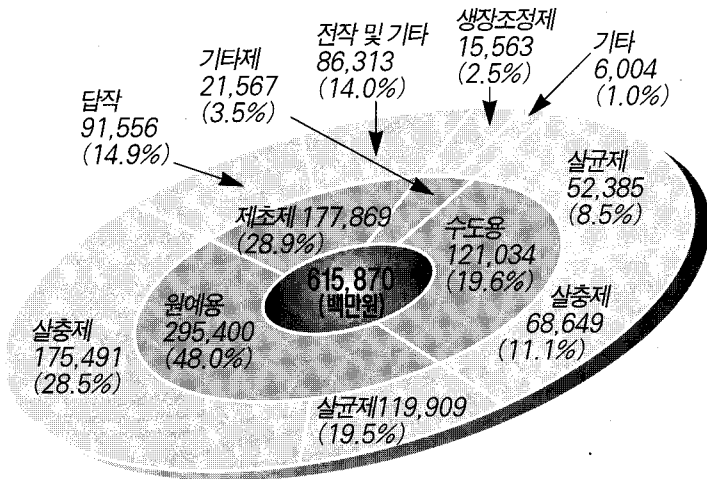
1996년도 국내 농약생산량은 2만5천85톤, 출하량은 2만4천6백41톤으로 95년에 비하여 각각 6.3%, 4.8% 감소했고 농약매출액은 6천1백59억원으로 95년의 5천9백37억원보다 3.7% 증가했다. 이같은 통계는 최근 농약공업협회의 최종집계에 따른 것이다.

96년도 농약생산량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수도용 4천8백58톤(전년대비 2.1% 감소), 원예용 1만6백80톤(" 15.6% 감소), 제초제 6천3백38톤(" 10.1% 증가), 생장조정제 및 기타 3천2백9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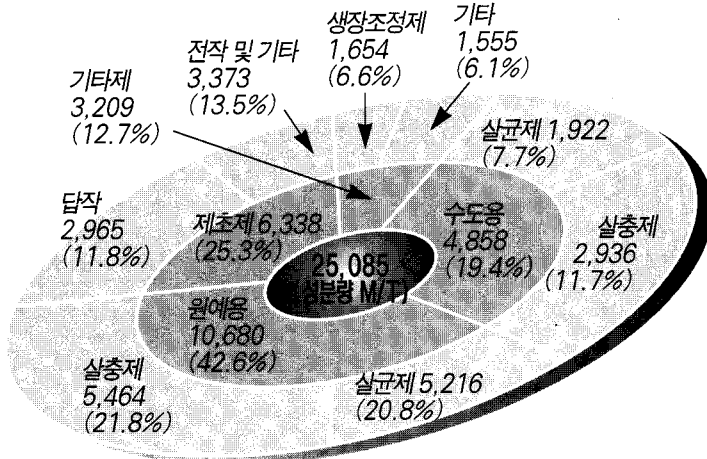
3.1% 감소)으로 나타났다.

출하량을 약제별로 살펴보면 살균제가 7천1백56톤(29.1%), 살충제 8천4백7톤(34.1%), 제초제 5천9백62톤(24.2%), 생장조정제 및 기타가 3천1백16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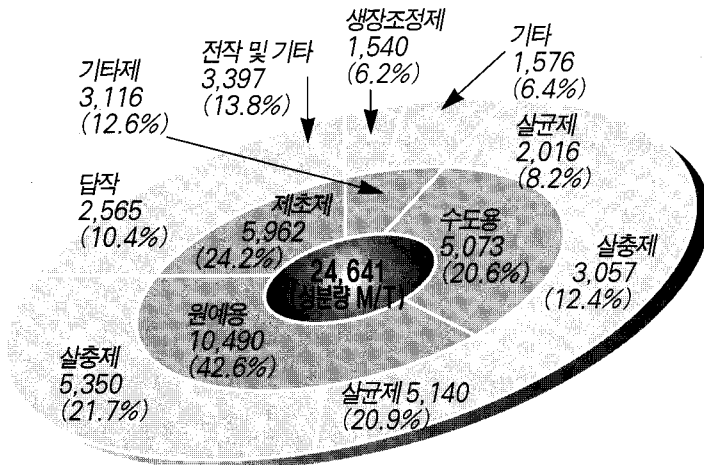




〈작물별 약제별 수출액 구성비〉



〈작물별 약제별 생산량 구성비〉



〈작물별 약제별 출하량 구성비〉

(12.6%)으로 전년대비 살균제, 살충제, 기타가 각각 10.5%, 5.8%, 3.2% 감소한 반면 제초제는 2.5% 증가했다.

수출·입 상황

96년도 농약수입액은 전년도 3억4백93만\$보다 9.1% 증가된 3억3천2백47만\$였다. 그중 원제가 73%인 2억4천2백5만\$, 합성원료가 24%인 7천9백78만\$, 완제품은 3%인 1천64만\$로 나타났다. 수입국별로는 일본에서 1억1천6백32만\$ (35%), 미국 6천5백69만\$ (20%), 독일 5천1백29만\$ (15%)로 총수입액의 70%가 3개국에서 수입됐고 나머지가 프랑스(6.5%) 등 20여개국에서 수입됐다.

한편 국내합성원제는 1천2백90억원(1억6천1백29만\$)으로 총원제수요 3천2백26억원(4억3백34만\$ = 수입2억4천2백5만\$ + 국내1억6천1백29만\$)의 40%로 국산원제 비중은 전년도(45%)보다 약간 낮아졌다.

96년도 농약수출은 5천7백12만\$로 95년의 5천8백26만\$보다 2%정도 감소했다. 그중 농약원제는 5천5백71만\$(97.5%)로 전년보다 0.8% 줄었고 완제품은 1백40만\$(2.5%)로 전년의 66% 수준이었다. 수출교역국은 일본(13.3%), 이태리(12.5%), 중국(10.1%), 영국(9.6%) 등 약 30여개국이다. **농약정보**